



4일 오후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SK 와이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1회초 1사 1,3루에서 4번타자 최형우가 우익수 오른쪽에 떨어지는 2타점 3루타를 날리고 3루에서 SK 최정의 태그에 앞서 세이프 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울스타 8명 KIA

'감독 추천' 제외

나성범(NC 다이노스)이 감독추천 선수로 5년 연속 울스타전을 찾는다. KBO가 5일 2017 타이어뱅크 KBO 울스타전에 출전할 감독추천 선수 24 명을 발표했다.

NC 김경문 감독이 지휘하는 나눔 울스타(KIA NC 넥센 LG 한화)에서는 나성범이·김진성·원종현·모창민(이상 NC), 김상수·김하성(이상 넥센), 임찬규·유강남·이형중(이상 LG), 배영수·정우람·최재훈(이상 한화)이 선발됐다.

이에 따라 나성범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울스타(베스트2, 감독추천3) 무대를 밟게 됐다. 배영수는 삼성 시절이던 2008년 이후 9년 만에 울스타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 안방을 찾게 됐다.

한편 8명의 베스트 멤버를 배출한 KIA는 감독추천 선수에서 제외됐다.

드림 울스타(두산 SK 롯데 삼성 kt)의 김태형(두산) 감독은 켈리·이재원·한동민(이상 SK), 박세웅·손승락·전준우(이상 롯데), 심장민·장필준·조동찬(이상 삼성), 피어밴드·이해창·박경수(이상 kt)를 추천 선수로 선정했다.

조동찬은 2010년 이후 7년 만에 '별들의 잔치'에 함께 한다.

한편 2017 KBO 울스타전은 오는 14·1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며, 팬투표와 감독추천으로 선정된 48명의 울스타 선수들은 울스타 콘서트, 홈런 레이스, 퍼펙트 히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여름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적' KIA, 유일한 적은 '부상'



잘 나가는 '호랑이 군단'의 적은 '부상'이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달 30일 LG 트윈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원정 9연전 길에 올랐다. '장마'라는 변수를 안고 먼 길을 떠났던 KIA는 예상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원정 9연전을 떠나기에 앞서 KIA는 내심 '장마 브레이크'를 기대했다. 장마로 인해 내내 중부권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

수도권 9연전 '장마 휴식' 없이 강행군... 체력 저하 우려

경기 중 다쳐도 '7연속 두자릿수 득점'에 아픈 줄도 몰라

보가 있었던 만큼 휴식의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KIA는 LG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치른 것은 물론 문학으로 이동해서도 정상적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일 LG와의 경기가 7회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강우 폴드가 선언됐었다.

전력 재정비를 위한 비를 기대했던 KIA의 강행군으로 더운 여름철 체력 관

리가 선수들에게 중요한 숙제가 됐다. 체력 저하는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상병도 발생했다. 6일 좌완 심동섭이 어깨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타올 1위' 김선빈은 발목 부상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부상으로 덕아웃에 비상이 걸렸던 순간도 있었다.

지난 2일 LG와의 경기에서 4-4로 맞선

5회초, 중전안타로 출루한 베나디나가 최형우의 타석 때 도루를 시도했다. 베나디나는 넉넉하게 2루 베이스를 훑었지만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잠시 경기가 중단됐다.

앞선 1일에는 안치홍이 아찔한 장면의 주인공이 됐다. 1-2로 뒤진 4회초 무사 1루에서 안치홍이 자신이 친 파울 타구에 무릎을 맞고 쓰러졌다. 안치홍은 한동안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부상 여파는 없었다. 베나디나는 부상 후 맞은 다음 타석에서 투런포를 날리며 이상무를 알렸고, 안치홍은 타석에 다시 서서 동점 적시타를 날렸다.

KIA에겐 뜻밖의 강행군 속 아찔했던

부상 순간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좋다.

지난 주중 폭발적인 경기력으로 NC전 3연패의 충격을 지우고, 삼성을 상대로 싸늘이 3연승을 거뒀던 KIA의 기세는 주말에도 계속됐다. LG를 상대로 KBO리그 연속경기 두 자릿수 득점 신기록을 5경기에서 6경기까지 연장했다.

지난 4일 SK와의 경기에서도 4회에 일찍 두 자릿수 득점을 넘어서면서 신기록 행진은 계속됐다. KIA는 이날 15-6 승리로 메이저리그의 기록을 넘어 연속 7경기 두 자릿수 득점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적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KIA에겐 '부상'이 가장 큰 적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지만 ML 재진입

한국인 두번째 양키스 입단

최지만(26)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최고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에서 빅리그 재진입의 꿈을 이뤘다.

양키스 구단은 5일(한국시간) 최지만을 메이저리그 액티브(25인) 로스터에 등록하는 대신 부진에 빠진 주전 1루수 크리스 카터를 방출대가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양키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은 최지만은 트리플A 56 경기에서 타율 0.289(190타수 55안타), 8홈런, 43타점으로 활약을 펼쳐 올해 첫 승격의 기쁨을 맛봤다.

최지만은 박찬호 이후 한국인 선수로는 두 번째, 타자로는 최초로 양키스 소속 메이저리거가 됐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에서의 마지막 해인 2010년 양키스에서 중간투수로 27경기에 출전해 2승 1패 평균자책점 5.60을 남겼다.

최지만의 팀 동료이자 동갑내기 내야수 롭 레프스나이다(한국명 김정태)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5개월 만에 입양돼 미국 국적이다.

지난해 최지만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소속으로 빅리그에 데뷔해 타율 0.170(112타수 19안타), 5홈런, 12타점을 올렸다. 월드시리즈 27회 우승으로 메이저리그 최다 기록을 보유한 양키스는 이번 시즌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 라이벌 보스턴 레드삭스와 선두 경쟁에 한창이다.

양키스의 '대형 신인' 에런 저지는 홈런 27개로 아메리칸리그 홈런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그 밖에 주전 야수들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주전 1루수 카터는 타율 0.203에 홈런 8개, 26타점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최지만은 당분간 1루수로 출전하며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지난해 최지만은 1루수로 27경기에 출전해 실책 1개만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 동성고, 청룡기 품으로 간다 '왼발 통증' 류현진 전반기 조기 마감

난적 마산 용마고에 '끝내기' 승... 16강 진출

주말리그 후반기 전라권 우승팀인 광주 동성고가 청룡기 정탈을 위한 행진을 시작했다.

동성고가 지난 4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72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32강전에서 마산 용마고를 6-5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황금사자기 준우승팀이자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용마고를 상대로 한 짜릿한 9회 역전극이었다.

동성고가 2-1로 앞선 8회초 수비에서 선두타자 강동권에 2루타를 맞은 뒤 볼넷까지 내주면서 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투수의 송구 실책과 폭투 등이 겹치면서 4실점을 했다. 이어진 8회말 KIA 1차 지명 선수인 한준수가 1사에서 볼넷으로 걸어나갔지만 후속타가 타지지 않으면서 패색이 짙어졌다.

그리고 2-5에서 진행된 마지막 9회말 공격.

1사에서 대타 김범민이 3루타를 때리며

극적인 역전쇼를 예고했다. 우중간을 가른 김범민은 유격수 송구 실책으로 득점을 올렸다. 그리고 김경훈, 전정배의 연속 안타를 시작으로 4-5까지 추격을 한 동성고가 2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다.

타석에는 5번 타자이자 에이스 김기훈이 섰다.

이날 선발투수로 나와 용마고 타선을 5.2이닝 1피안타(1피홈런) 6사구 4탈삼진 1실점으로 막았던 김기훈의 다섯 번째 타석. 앞선 네 타석에서 침묵했던 김기훈은 좌전 안타를 때려냈고, 동점 주자에 이어 역전 주자까지 홈을 밟으면서 6-5의 짜릿한 끝내기 승이 완성됐다.

'난적' 용마고를 끝내기로 제압한 동성고는 오는 8일 오후 6시 휘문고와 8강행 티켓을 놓고 대결한다.

한편 진흥고도 지난 3일 송탄 제일고를 4-1로 누르고 16강에 진출했다. 진흥고는 6일 오후 3시 인천고와 8강을 다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전반기를 조금 일찍 마감했다. 타구에 맞은 왼발에 통증이 남는 탓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지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빌 플럼킷 기자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빌 사이먼 기사는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류현진이 뼈 스캔 검사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통증을 느낀다"며 "다저스는 류현진을 부상자명단에 올리고 로스 스트리플링을 메이저리그 현역 로스터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저스 구단은 곧 류현진의 DL 기간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류현진은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4회 안드렐톤 시몬스의 강한 타구에 왼발을 맞았다. 한동안 주저앉아 발 상태를 살필 정도로 통증이 컸다. 하지만 류현진은 계속 마운드를 지켰고 5.2이닝 동안 7피안타 2실점했다.

관건은 부상 정도다. 류현진은 지난달



30일 엑스레이 검사를 했고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저스는 엑스레이 검사보다 세밀하게 뼈 상태를 관찰하는 뼈 스캔을 권했고, 류현진은 4일 정밀 검진을 했다. 이번에도 뼈 등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류현진이 계속 통증을 느끼자, 다저스는 회복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애초 류현진은 이르면 8~10일 열리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경기에 등판할 전망이다. 캔자스시티는 다저스의 전반기 마지막 상대다.

류현진이 발 통증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다음 등판은 15일 재개하는 후반기로 미뤄졌다.

/연합뉴스